



상트페테르부르크황립대 최초의 한국어 교수
김병옥(1874 - ?): 그의 삶과 행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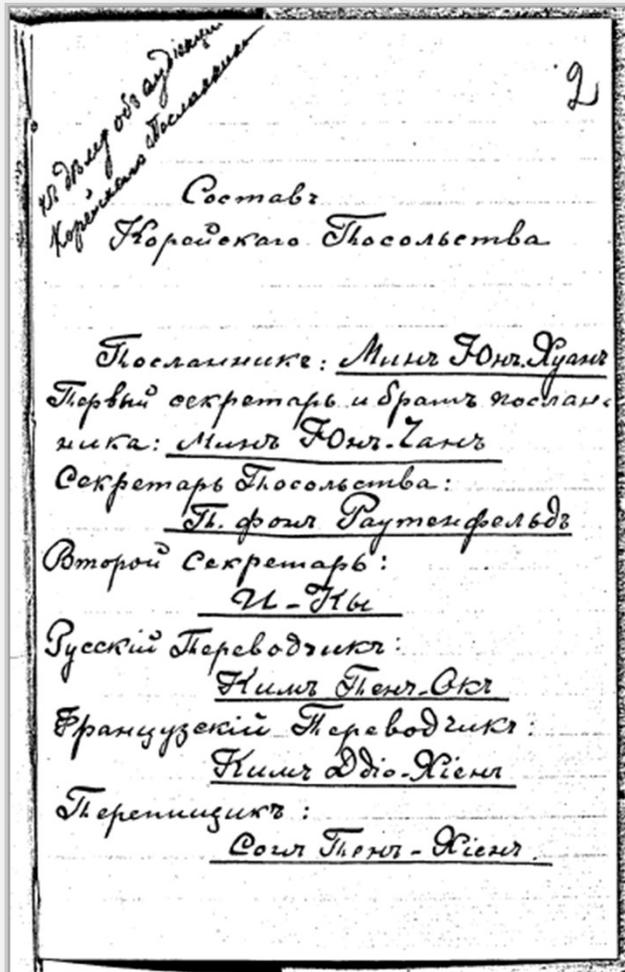
세르게이 올레고비치 쿠르바노프



1. 서론: 한국어 연구의 모태가 된 19C 말 조러간 외교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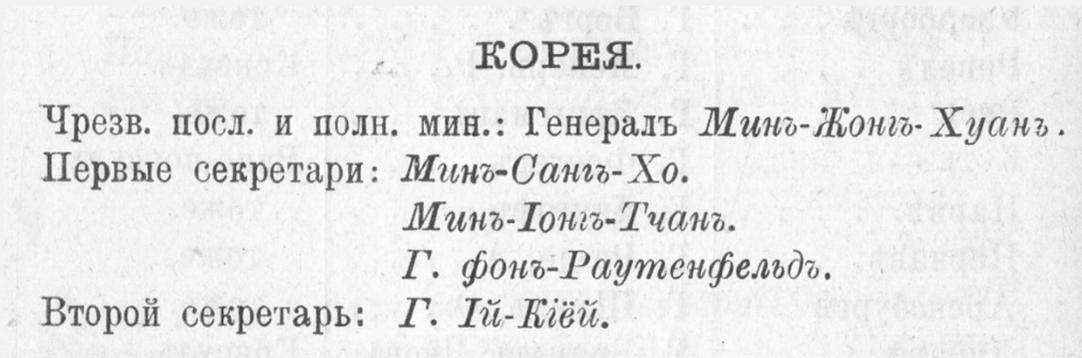
- 러시아제국과 조선의 공식적인 외교관계의 시작은 조러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바로 1884년에 서울에 러시아공사관이 개설되었다.
- 페테르부르크 주재 조선 공사관은 훨씬 더 나중에, 조선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난 후인 1897년에야 개설된다.
- 이를테면,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과 고종이 1896년 2월부터 1897년까지 러시아공사관에 피신해 지냈던 아관파천을 들 수 있다.
- 한편, 1896년 5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민영환 전권공사를 대표로 한 조선사절단이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이후 국가간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증진된 것도 그 배경이 되었다.

페테르부르크 주재 최초의 조선 공사관(1897 - 1900년)



- 민영환(1861~1905) 특명전권공사가 공식적으로 이끈 조선 공사관은 1897년 5월부터 1900년까지 운영되었다.
- 민영환이 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한 기간은 1897년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로 길지 않다.
- '공관' 소속 '러시아어 통역관'은 김병옥이었다.
- '사절단'이 떠난 이후에 공관 직원은 공식적으로 페테르부르크에 남았고, 그 명단이 '외교연감'에 수록되었다.
- 그들 가운데 페테르부르크에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김병옥 외에 아무도 없었다.

최초의 조선 공사관 직원(1897년).



- 민영환이 1897년 6월 1일에 떠난 후, 조선 공관은 형식적으로 폐쇄되었다.
- 1898년 '외교연감'에 따르면, 조선 공관 직원은 다음과 같다.
 - 특명전권공사: 민정환
 - 일등 참서관: 민상호, 민영찬, 폰-라우텐펠드
 - 이등 참서관: 이기
- 김병옥은 명단에 없다.

페테르부르크 주재 최초 조선 공사관(1900년)

- 1899년 '외교통보'는 러시아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1900년 '외교통보'에 수록된 정보는 일 관 되 지 않 는 다 . 불 어 본 에 는 민영환(특명전권공사), 민상호(1등 참서관), 민종자(1등 참서관), 드 라우텐펠드(1등 참서관), 이기(2등 참서관)가 기재되어 있다.
- 반면, 러시아어본에는 조선 공사관의 직원으로 특명전권공사 민영환과 통역관 김병옥, 두 사람만 명시되어 있다.
- 따라서, 민영환 등 최초 페테르부르크 공관 직원 가운데 김병옥만이 남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КОРЕЯ.

Чрезв. посл. и полн. мин.: Генераль *Минъ-Ионъ-Хуанъ*.
Переводчикъ *Пенъ-Окъ-Кимъ*.

페테르부르크 주재 두번째 조선 공사관(이범진 공사)과 김병옥(1900~1905년)

- 1901년 '외교통보'에서는 1900년 이범진 공사관의 직원으로 김도일과 함께 김병옥이 명시되어 있다.
- 그러나 이미 1901년(1902년 '외교통보')부터 조선공사관 직원 명단에 김병옥도, 김도일도 보이지 않는다.
- 김병옥이 공관을 그만 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 그러나 1897년부터 적어도 1917년까지 김병옥은 페테르부르크대학교 동양학부에서 강의했다는 증거들이 있다.

КОРЕЯ.

Чрезв. посл. и полн. мин.: Г. Чинъ-Поммъ-Ий.

Второй секретарь: Г. П. О Намъ.

Третій секретарь: Г. Чонъ-Ки-Ий.

Состоящіе при миссіи: Г. Кимъ-То-Иль.

Г. Кимъ-Пиэнъ-Окъ.

김병옥, 그는 누구인가? 러시아의 고려인인가?

- '아시아통보(1924년 52호)'에 페테르부르크대 졸업생으로 동방연구소 최초 한국어학과장(1900년~)인 그리고리 블라지미로비치 포드스타빈(1875-1924)의 약력에서 다음의 내용이 적혀있다.
- 페테르부르크대학 동양학부에 프리아무르스키주 출신의 조선인이 조선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선어 기본 지식을 가르치는 조선어 선택강좌가 있었다.
- 여기에서 말한 사람이 김병옥일까, 혹은 다른 사람일까?

김병옥 - 김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

- 주소기록부인 '베시 페테르부르크'(1914년 '베시 페트로그라드'로 개명)에서 김병옥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다.
- 그는 항상 페테르부르크(페트로그라드)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 그가 등록한 공식적인 주소지는 어디에나 있다.
- 1901년 기록부에 김병옥이 한 번은 '조선 공관 아타셰'로도 명시되어 있었다.
- 1904년(1904년 발행된 기록부)부터는 김병옥 조선 이름과 아울러 러시아 (정교) 이름인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가 병기되었고, 배우자인 마리아 마트베예바(혼인) 역시 언급되었다.
- 김병옥은 적어도 1917년까지 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다.

Ц- КИММИМГЪ Антонъ Эстлянд-
 ская, 8.
 М. КИМОНТЪ Ант. Пет. двн. Б.
 Коюшенная, 5.
 С. КИМЪ-ПЕНЪ-ОКЪ Евг. Никл.
 Кронверкская, 20--2. Имп. Спб.
 Унив.
 8. — Мар. Матв. Кронверкская,
 а 20—2.
 КИНАРЪЕВЪ Алдръ Алдр. прч.
 Б. Ружейная, 12. Гл. шт.
 М. КИНАСТЪ Лоретъ Карл. Сало.

С. — Ром. Никл. поч. гр. Дег-
 л. тярная 22.
 С. КИМЪ-ПЕНЪ-ОКЪ Евг. Никл.
 В. О. 5 л. 66. Имп. Цгр. унив.
 Ц- — Марія Батенина 9.
 КИНАНЕНЪ Никл. Ion. Финскій
 пер. 10.

김병옥이 등록한 주소지

- 주소기록부인 '베시 페테르부르크'에 김병옥이 등록한 거주지 정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1899-1902: 알렉산드롭스키 대로 21번지(현재 도브로류보프 대로).

1903: 니콜라옙스카야 나베레주나야 17번지(현재 쉬밋트 나베레주나야).

1904: 얄스카야 가 10번지(현재 도스토옙스키 가).

1905: 크론베르스카야 나베레주나야 20번지.

1906: 아카데미체스카야 가 4번지.

1907: 아카데미체스키 골목 4번지.

1908: 넵스키 대로 78번지.

1909-1911: 바실리옙스키 오스트로프 대로 6번라인 1번지

1912-1917 (그 이후까지로 추측): 바실리옙스키 오스트로프 대로 5번라인 66번지.

김병옥이 이 주소지에 정말 살았을까? 이 점은 이후에 살펴보겠다.

김병옥이 등록한 최초의 집



알렉산드롭스키 대로 21번지(현재 도브로류보프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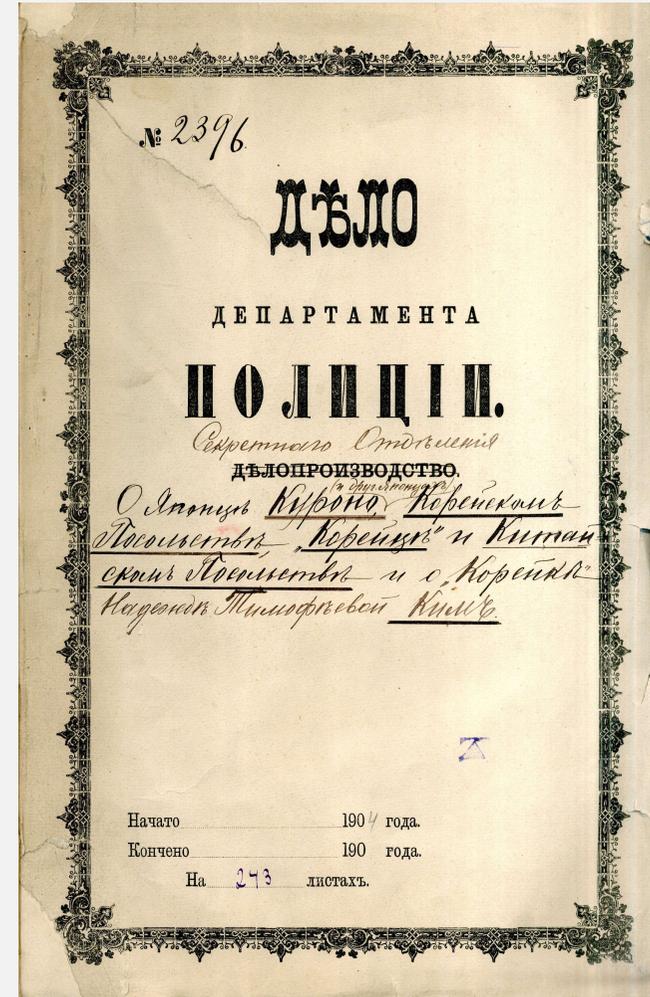
김병옥이 등록한 마지막 집



바실리엵스키 오스트로프 대로 5번라인 66번지

김병옥 그리고 비밀경찰의 사찰 (1904년)

-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이 러시아의 동맹국이 되기 전, 적어도 1904년 상반기에 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한 많은 조선인들은 비밀경찰의 감시 하에 지냈다.
- 감시 대상에는 조선 공관 직원들과 나제쥬다 티모페예브나 김과 같은 '의심스러운 조선인들'이 있었다.
- 일명 '카레이카'라고 불리던 나제쥬다 티모페예브나 김과 자주 만난 김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 즉 김병옥 역시 마찬가지였다.



나제쥬다 티모페예브나 김, 일명 '카레이카'(1904년)

- 모스크바 소재 러시아국립문서보관소의 비밀경찰 고문서
- «1904년 4월 17일부터 카멘노오스트롭스키 대로 19번지에 블라디보스톡 제2상인길드 조합원의 아내인 나제쥬다 티모페예브나 김(29세)이 아들 로만(6세), 조카 예카테리나(11세), 리가의 가정교사 로잘리야 카테리나 베르타와 산다.
- 김은 모스크바에서 주소지를 등록했다.
- 월세 18루블에 해당 주소지 18호의 방을 임차했다.
- (러일전쟁) 전선 보급을 책임지는 러시아군 장교들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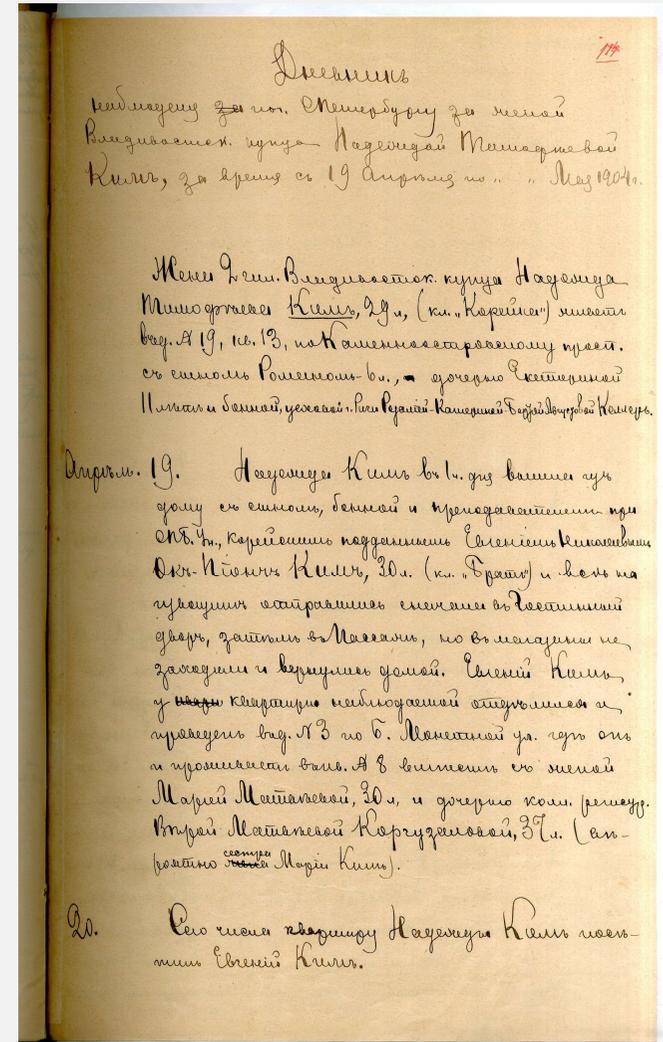
1904년 4월 19일 현재

김병옥에 대한 비밀경찰의 정보

4월 19일. 나제취다 김은 오후 1시에 아들, 부모, 페테르부르크대 조선인 교수 예브게니 니콜라예비치(김병옥, 30세)와 함께 집에서 나와... 고스티니이 드보르, 그 후 파사쉬로 갔지만, 가게에 들르지 않고 귀가했다. 예브게니 김은 감시 대상자의 집에서 나와... 아내 마리아 마트베예바(30세), 최하위직 관리의 딸인 베라 마트베예바 코르구진스카야(37세, 마리아 김의 자매로 추측)과 함께 사는 집(볼샤야 마네트나야 가 3번지 8호)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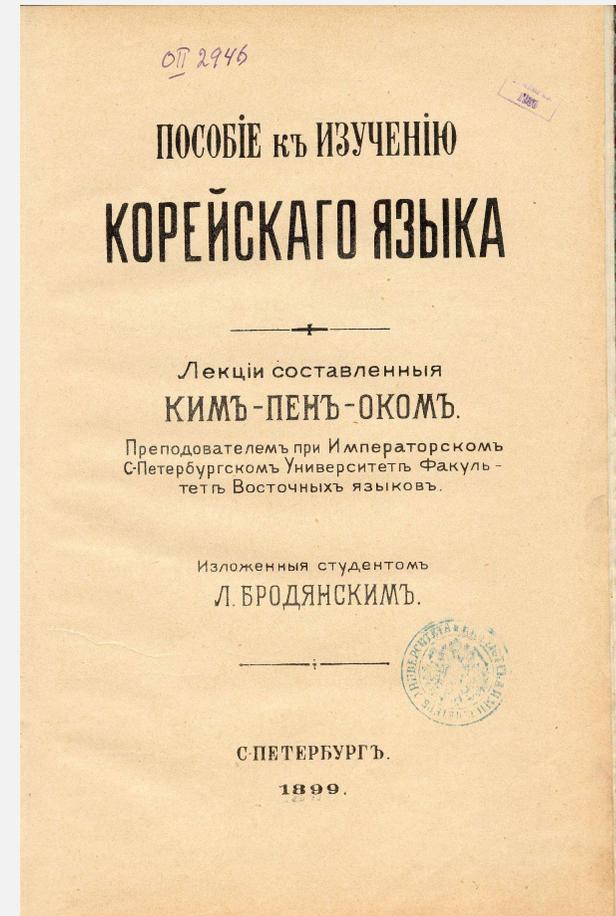
정리:

- 1) 김병옥 출생년도: 1874년경
- 2) 김병옥이 강의를 시작(1897년)할 무렵에 23세(!)였다.
- 3) 최초의 한국어 교과서가 출판되던 해(1899년)에 25세였다.
- 4) 실 거주지가 등록지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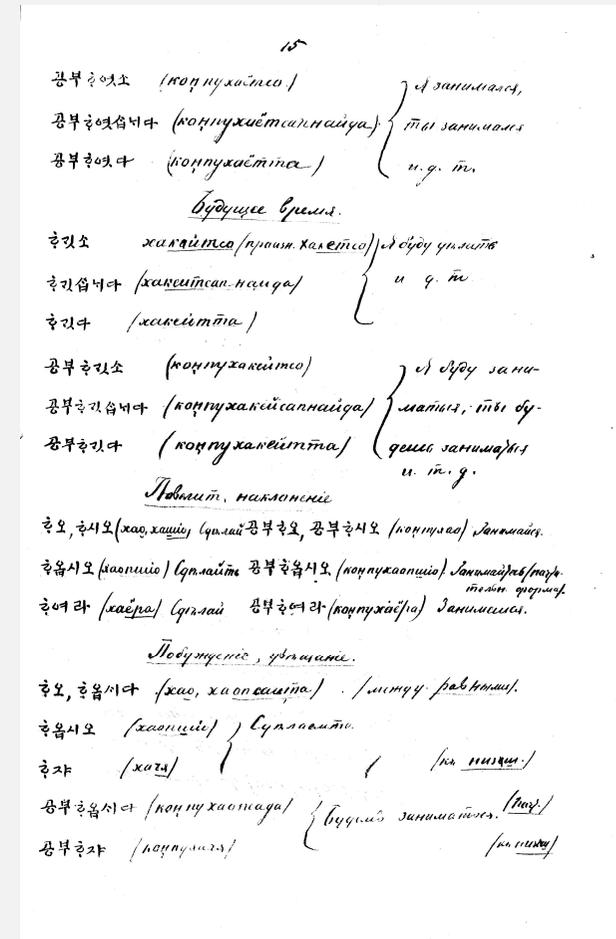
김병옥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최초의 교재

-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김병옥은 러시아어 통역관이었으므로 러시아어로 가르쳤다.
- 첫 교재: '페테르부르크황립대학교 동양학부 김병옥 교수 강의록. 학생 브로잔스키 편'(페테르부르크, 1899)
- 이 교재는 한국어 문법 참고서이다.
- 김병옥은 분명 강의에 한국어 원서들을 활용했을 것이고, 이 교재들은 동양학부 도서관에 여러 부 소장되어 있다.



김병욱: 강의 수준

- 앞서 말한 게오르기 블라지미로비치 포드스타빈이 김병욱의 한국어 강의 수준에 대해 언급했다.
- «...학부 과정에서 배운 지식으로 1899-1900년에 일 년간 서울에 출장갔을 때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던 초기에 최단기간에 한국어 구조를 깨우치고, 어려움을 점점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기에 충분했다...»



한 인간, 애국자로서 김병옥

-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한 후 김병옥은 페테르부르크의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의 패전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 기자는 김병옥에 대해 '전형적인 조선인'이고 '최고 수준의 인텔리젠트'라고 평가했다.
- 김병옥은 한때 조선인들은 '아시아인들을 위한 아시아'라는 일본의 기치를 믿고 일본인 편에 서고 싶었지만, 사실은 '일본인들을 위한 아시아'로 진상이 드러나자, 조선인들이 등을 돌렸다고 말했다.

결론

유감스럽게도 김병옥에 대한 정보가 실제로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1917년 이후에 김병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과 10월혁명으로 이어진 격동의 소용돌이에서 고문서들이 소실된 탓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조국을 사랑하는 러시아 여성과 가정을 일구고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강의한, 젊은 인텔리젠트, '전형적인 조선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소개하기에는 충분할 만큼 자료를 수집했다.

여하튼 "동방연구소" (국립 대학교) 한국어학과장인 포드스타빈에게 김병옥은 최초의 한국어 교수였다.

처음으로 러시아어로 한국어문법책(1938)을 쓴 홀로도비치는 김병옥의 교재를 알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적어도 그는 포드스타빈의 저서들을 인용한다.)

A vertical calligraphic signature in black ink on a white background. The characters are written in a bold, expressive style. The name is Kim Byung-ok (김병옥) followed by a smaller character, likely a surname or a personal mark (석).